

『인권연구』 6(2): 431-436.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2): 431-436.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2.431>

[현장논단]

공익변호사의 자격

: 로스쿨 학생의 고민

정 윤 수*

공익변호사를 꿈꾸게 되다

나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해 여전히 공익변호사를 목표로 공부중이다. 아직 1학년에 불과한 만큼 너무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1학년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한가한 고민을 용감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공익변호사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지를 위해, 혹은 헤매고 있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적는다.

공익변호사를 목표로 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는 무척 단순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이었던 2월이었다. 새내기배움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발송한 이메일을 받았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원활동가 합격 소식이었다. 선발 방식이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이 아닌, 추천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사실상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었던 나는 공감에서 반년간 변호사님을 보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때는 솔직히 말해서, 공감의 변호사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다. 혈기 왕성했던 나로서는 당신들의 열정이 너무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지금은 부끄럽지만, ‘멋있어 보여서’ 공익변호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후 학부생이 경험할 수 있는 공익 활동, 봉사 등은 웬만하면 모두 참여하며 나름의 인사이트를 키우기 시작했다. 은근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던 나로서는, 그리고 기자인 가족의 영향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기르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고 운 좋게도 단번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로스쿨에서 공익인권법학회장을 맡고 있고, 내가 공익변호사를 꿈꾸게 만들어 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로스쿨생으로서 실무수습을 다녀왔다. 나름대로 성장해서 돌아온 듯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익변호사의 꿈이 정말 실현되겠다는 확신을 점점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과연 내가 동경했던 공익변호사들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공익변호사 진로를 만류하는 지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래, 로스쿨 갔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뭐 할거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에도, 괜스리 답변을 주저하게 된다. 공익변호사가 되려고 한다고 밝히면, 보통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할수록 더 크게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힘든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고민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익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먼저 대외적으로 많이 듣는 이 조언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나누려고 한다. 사실 비단 공익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나 같은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다. 그만큼 딱히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1)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 문제, 2) 추후 커리어 개

말에 있어서 한정적이다?, 3) 꼭 전업 공익변호사여야 할까?

첫째,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 문제는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물론 공익이라는 가치를 위해 어느 정도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것은 분명 필요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2년 정도 프로보노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만한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공익과 양립할 것이다. 공익변호사는 꼭 가난해야 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 물론 대부분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단체 특성상, 소중한 후원금을 무작정 높은 임금에 써버리는 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변호사의 신념으로만 공익 활동을 이어가기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혹독하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 후원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도 받는다든지, 민사 사건에서 손배 청구 금액의 일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펌에서 출자한 공익 재단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공익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예전보다는 공익변호사들의 선택지가 그나마 넓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둘째, 공익변호사만을 꿈꿔온 나 같은 케이스에 적용되는 문제이다. 공익변호사가 하고 싶어 진학한 로스쿨인만큼,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다. 하지만 공익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추후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다는 조언들을 듣게 되었다. 좋게 생각하면, 공익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지만, 나쁘게 말하면, 다른 분야는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공익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해 활동하다가 개업을 하거나 사내변호사를 하거나, 공익변호 이외의 분야로 이직하는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 수임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수임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다가 나중에 공익 활동쪽으로

넘어가는게 낫다는 조언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때도 공익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쪽 공익변호사를 하고 싶은 내게는 별로 의미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에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으로 남게 되었다.

셋째, 두번째 문제에 대한 대안에 관한 고민과 이어진다. 다른 일을 하다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공익활동은 틈틈이 하라는 것이다. ‘공익은 생활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다. 물론 대형 사건들의 경우 전업 공익변호사의 존재가 분명 필요하지만, 소형 사건들의 경우 어차피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공익 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틈틈이 공익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지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일수도 있다. 하지만 전업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조언이기도 하다. 애초에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어 법조인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 고민들은 모두 명확한 답이 없다. 공익변호사로서 필드에서 활동하면서도 계속해서 부딪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추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된다면 위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만 바라보고 전진하기에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 이상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확실한 목표의식 혹은 가치관이 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내가 동경했던 공익변호사들은 당시 내 눈엔 모두 너무 선해보였다. 마치 종족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남의 고통에 이렇게 내 일인 것 마냥 슬퍼하고 화낼 수 있을까 감탄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난 저만큼 착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기적인

꼭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과연 공익변호사를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자문하기 시작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표현이 있다.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 스스로를 착한 아이로만 비취질 수 있도록 강박증을 가지는 일종의 불안장애이다. 내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공익변호사를 꿈꾸게 된 이후, 그에 걸맞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겼다. 하지만 그냥 내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마인드셋이 아니었다.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인 이상, 가기 싫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봉사하다가 열 받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순간마다, 나는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라고 자책했다. 개신교 신자이지만, 템플스테이까지 가서 스님에게 선한 삶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그만큼 절박하게 찾아다녔지만, 결론은 의미 없는 고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공익변호사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아무런 흠 없이 순백하게 살아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사람인만큼, 언제나 그러한 고결함을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고결함은 공익 활동의 활동 반경을 좁힐 뿐이다. 순백한 선함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없다. 대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분노’이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대뜸 분노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약자의 처지에 공감하고, 감정 이입해서, 내 일인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분노한다면, 그게 바로 공익 활동이라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다. 나도 이러한 분노 능력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공익변호사로 나아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생겼다.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은, 더 많이 내려놓게 되었다. 꼭 분노할 수 있어야 공익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또한 공익변호사의 풀을 좁히고 그냥 성난 변호사만 남을 뿐이다. 지금 드는 생각은, 공익변호사에게 사명감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엄청난 사명감이 없어도, 엄청나게 선하지 않아도, 불의에 분노를 폭발시

킬 수 없어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공익변호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에 실제 공익변호사를 묶어두는 것은 좋을 게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내가 근무했던 공감에서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사실상 고등학생이었던 무지한 소년을 자원활동가로 뽑은 이유, 즉 선발 방식을 기존의 서류-면접 전형에서 추천 전형으로 바꾼 이유를 여쭙 적이 있다. 의외의 답변이 있었다. 간절하지 않아도, 공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도, 이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익에 관심이 생긴다면 전체로 봤을 때는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이다. 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만큼, 다양한 보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처럼, 공익변호사의 일도 결국 일일 뿐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저 일이니까 묵묵히 하는 것처럼, 공익 활동도 엄청난 사명감이 없어도 그저 일이니까 묵묵히 할 수 있고, 그렇다고해서 그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한다.

글을 마치며

아직 로스쿨 1학년 재학생에 불과한만큼 다소 건방지고 무지한 글을 쓰게 되어 혹시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공익변호사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솔직한 감상을 나누고자 용기를 냈다. 다른 로스쿨생들, 혹은 변호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서 먼저 감상을 나눈 측면도 있다. 관련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마인드셋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가령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수시로 개최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가볍게 생각해본다. 공익변호사라는 다소 막막한 진로를 꿈꾸는 것은 분명 외롭고 지치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본다.